

기준금리 인하에 ‘예금금리 3%대’ 자취 감췄다

SC제일 등 은행권 일제히 금리 내려

5대 은행 정기예금 年 2.55-2.85%

최대 0.30%p ↓ …추가 하락 전망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0.25%p 인트(p) 인하하자, 은행권이 발 빠르게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5종 금리를 최대 0.20%p 내렸다.

이에 따라 퍼스트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연 2.15%에서 2.05%로, 온라인 전용 상품인 e-그린세이브예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0%로 조정됐다.

NH농협은행도 전날부터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5-0.30%p, 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30%p, 청약 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를 0.25%p 각각 인하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도 지난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예금 금리를 일제히 낮췄다.

토스뱅크는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기본금리를 최대 0.30%p 내렸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 토스뱅크 모으기, 이자 받는 저금통, 나눈 모으기 통장, 모임 금고의 기본금리는 연 1.80%에서 1.60%로 0.20%p씩 낮아졌다.

적립식 예금 상품인 토스뱅크 자유적금과 토스뱅크 아이적금의 12개월 만기 기본금리는 연 2.80%에서 2.50%로 0.30%p 내렸다.

케이뱅크도 같은 날부터 플러스박스와 코드K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0%p 인하했다.

파킹통장인플러스박스금리는 5천만원 이하 연 1.90%, 5천만원 이상 2.40%로 각각 0.10%p씩 내렸다.

코드K정기예금 6개월 만기 금리는 연 2.70%에서 2.60%로, 12개월 만기 금리는 2.80%에서 2.75%로 조정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1일부터 금리를 낮췄다. 모으기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기록통장과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 상품 부가세박스 등 수신상품 3종의 기본금리가 기존 연 1.80%에서 1.60%로 0.20%p 조정됐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公示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5-2.85%로 집계됐다.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4일(연 2.58-3.10%)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졌다.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고객에 0.5%p의 우대 금리를 주는 ‘NH고향사랑기부예금’의 최고금리가 한 달 전까지는 3.10%를 기록하면서 3%대를 유지했으나, 이제는 3%대 금리를 주는 상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내내 하락하고 있다.

지난 4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1%로 집계됐다. 전월 2.84%에서 0.13%p 낮아졌으며, 지난해 10월(3.37%)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은이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예금 금리 하락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했기 때문에 향후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속도와 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전기차 혁신 기술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기아자동차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혁신 기술 총집합 ‘EV 트렌드 코리아’ 개막

내일까지 코엑스에서 94개사 451개 부스

국내 대표 전기차 혁신 기술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5’가 오는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코엑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8회째로 완성차와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

기업 등 총 94개사가 451개 부스를 꾸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현대차·기아, KG모빌리티(KGM), BYD(비아디) 등 완성차와 전기차 충전 설루션 기업 이볼루션, EVSIS, 에바 등이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이날은 EV 무비데이·북콘서트·투자 세미나 등 전기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이해를 넓히는 각종 행사가 열린다.

공식 개막식이 열리는 4일에는 ‘제4회 EV 어

워즈 2025’ 및 ‘K-EV100 무공해차 전환 우수기업’ 시상식이 진행된다.

기아 EV4(대한민국 올해의 전기차),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올해의 충전사)가 환경부장관상을 받는다. 현대차 아이오닉9, 유플러스 아이티는 소비자 선정 전기차·충전사로 각각 뽑혔다.

또 볼보 EX30·폴스타4(전기차), 모던택(충전사)은 심사위원이 선정한 혁신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시 기간 코엑스 남문광장에서는 국내외 최신 전기차 6종의 시승 행사가 열린다. /연합뉴스

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청키로

비금융업 확대 등도 요구

은행권은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고 투자일임업·신탁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서 은행들은 현재 실행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

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권은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향후 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요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은행의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 규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 ‘신중론’ 제기

국내 증시가 최근 급등세로 코스피 2,720선을 넘어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증권가에서는 매크로(거시경제) 측면의 취약성을 간파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관세 및 국내 정책 기대 관련 심리 개선이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크로 측면의 펀더멘털(기업의 기초 체력) 여건은 부족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주력 상품 중 반도체가 역대 5월 최대치를 기록하며 선방했으나, 자동차 수출이 30% 이상 급감했다.

미국과 중국에서 수출이 동시에 크게 감소하며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3분기에는 한국 수출 사이클의 추가 둔화 우려, 무역협상 불확실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증첩될 수 있다.

조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 국내 정책 기대 관련 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펀더멘털 여건이 부족해 외생 변수에 의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3분기까지는 추세적 상승 흐름보다는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분기 조정을 거친 증시는 4분기에는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 연구원은 예상했다.

9월을 전후로 연준이 통화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트럼프 관세 및 감세 정책도 윤곽을 드러내며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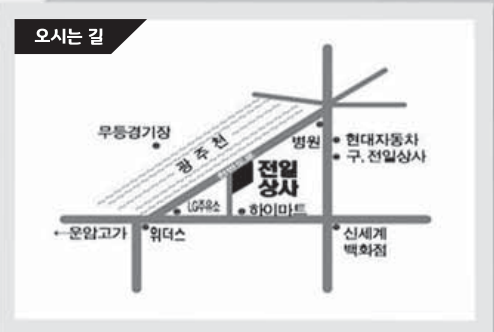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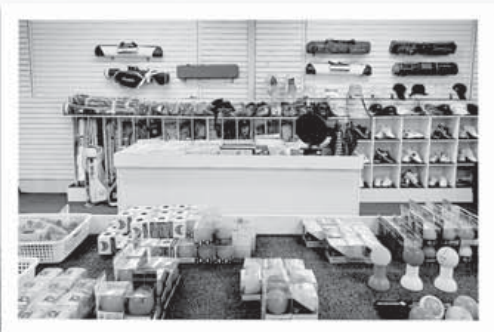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2분기 말과 3분기 초까지는 조선과 방산, 전력기기, 소비재 등 기존 주도주의 선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3분기에는 매크로 둔화가 가시화하고 불확실성이 재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배당 성향과 자사주, 밸류업 등 방어적 스타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4분기에는 경기 사이클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IT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자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